

# ‘국가 AI 컴퓨팅센터’ 순항…삼성SDS 컨소시엄 현장회의

해남 솔라시도 부지 둘러보고 지반 안전성 등 점검  
네이버·카카오 등 참여 IT기업 관계자들도 다수 방문

전남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뒤바꿔 놓을 ‘국가 AI 컴퓨팅센터’(이하 컴퓨팅센터)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삼성SDS 등 컴퓨팅센터 컨소시엄 관계자 50여 명은 처음으로 해남을 방문해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시찰하고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컴퓨팅센터 사업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첫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사업의 중요도 만큼이나 지금 조달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외 투자 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컨트리클럽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 TF 정기협의체’ 4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컨소시엄 대주주인 삼성SDS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 IT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와 부지 기반공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구상하게 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를 비롯한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말부터 격주로 정기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세 차례 회의는 삼성SDS 본사에서 열렸지만, 네 번째 회의는 현장 개최를 약속하고 이날 해남 방문으로 이어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회의를 마친 후 데이터센터 부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에 올라 사업 부지를 살펴본 뒤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 인근까지 이동해 현장을 살폈다. 솔라시도를 처음 찾은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데이터센터 부지와 40만평에 달하는 부지와, 인접한 용수(영암호), 지반 안정성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며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력 공급의 필수적인 154kV(킬로볼트)급 변전소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028년 4월까지 변전소 설치를 약속한 상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중추 사업으로 꼽힌다.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이상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지속 확충해, 학계와 연구계, 중소·벤처기업 등이 GPU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컴퓨팅센터는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상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하반기경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총 사업비가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자금 조달 구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컨소시엄 측은 직접 출자하는 자본금 외에 건축비 등 부족분 1조 7000억원을 국민성장 펀드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은행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솔라시도를 비롯한 전남도 내 국내외 IT기업들의 투자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AI 산업은 직접화될수록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유수기업이 투자를 결심한 만큼 다른 기업들의 진입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금융 십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 신청액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수익 예상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해남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SDS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7일 해남군 솔라시도 내 데이터센터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 5·18 암매장지로 북구 효령동 공동묘지 지목 이유는

계엄군 투입 31사단 병력 주둔지  
주민들 “5·18 전후 새무덤 생겨나?”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북구 효령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암매장 발굴 조사는 단순한 제보 접수를 넘어선 체계적인 검증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북구 효령동 옛 공동묘지 일대에 5·18 희생자 암매장痕迹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입수한 뒤, 6개 월간의 정밀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에도 기동타격대의 제보 등으로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재단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을 확보해 당시 해당 지역 작전에 투입됐던 31사단 소속 장병들의 명단을 파악, 계엄군의 이동 경로와 작전 내용을 재구성했다. 이어 주민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해 암매장 추정지의 좌표를 설정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31사단 병력이 주둔했던 곳이다. 인근 주민들은 “1980년 5·18을 전후해 평소 조용하던 공동묘지 쪽으로 군부대 차량이 빈번하게 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트럭이 다녀간 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봉분이 새로 생겨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광주시는 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행정 절차를 밟게 됐다.

다면 해당 지역이 과거 공동묘지였다는 점은 변수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정확한 위치 정보 없이 주민들이 이야기로 근거를 탐문했을 당시 군 차량의 이동 제보들이 있었다”면서 “공동묘지 부지라는 점에서 유골은 나오겠지만 5·18 암매장 관련성은 세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와 재단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40년 넘게 가족을 기다려온 이들의 염원을 풀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손주 돌보면 월 20만 원 드려요”

###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본격화

광주시가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손자녀가족돌보미’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광주시는 ‘2026년도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지원’을 마련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에는 전액 시비로 예산 8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상동이 또는 두 자녀 이상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돌봄 대상 아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다.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 자격은 70세 이하의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주어진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이다. 하루 4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연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활동가는 16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활동가(재교육자)는 보수교육을 포함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은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라면’·‘해녀’·‘선배’… 옥스퍼드영어사전에 K단어 8개 등재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영어사전인 옥스퍼드영어사전에 한국 문화에서 온 단어 ‘라면’(ramyeon), ‘해녀’(haenyeo), ‘선배’(sunbae) 등 7개가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이다.

옥스퍼드영어사전(OED) 한국어 컨설턴트 지은 케어(한국명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는 7일 ‘빙수’(bingsu), ‘찜질방’(jjimjilbang), ‘아줌마’(ajumma), ‘코리안 바비큐’(Korean barbecue), ‘오피스텔’(officetel) 등 한국 문화 관련 8개 단어가 추가됐

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달고나(dalgona)’, ‘막내’(maknae), ‘떡볶이’(tteokbokki) 등 7개가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이다.

1884년 처음 출판된 영어권의 권위 있는 사전인 옥스퍼드영어사전은 현재는 바로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한국 관련 단어는 드물게 오르다가 2000년대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대박’(daebak), ‘오빠’(oppa) 등

26개가 무더기로 올랐다.

이번에도 한류의 영향으로 사용빈도가 크게 높아진 단어들이 추가됐다. ‘라면’과 ‘해녀’도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어에서 온 ‘라면’(ramen)과 일본 해녀인 ‘아마’(ama)는 그보다 앞서 올라 있었다.

케어 교수는 “몇 전에도 해녀를 올리려 했지만, 영어로 된 연구나 자료가 많지 않아 여의쳤었다”며 “최근에는 해녀 소재 드라마로 해녀에 대한 인지도와 영어권 언급이 많아지면서 수월하게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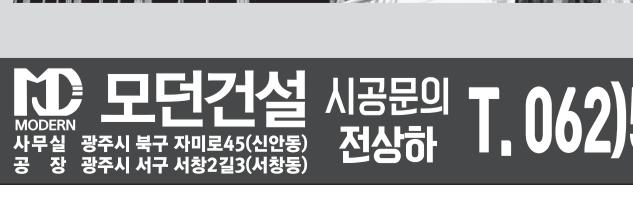
옥상스틸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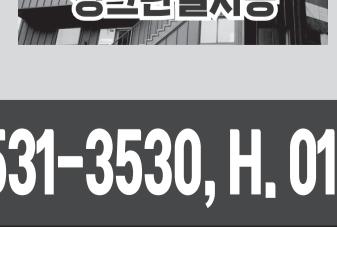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